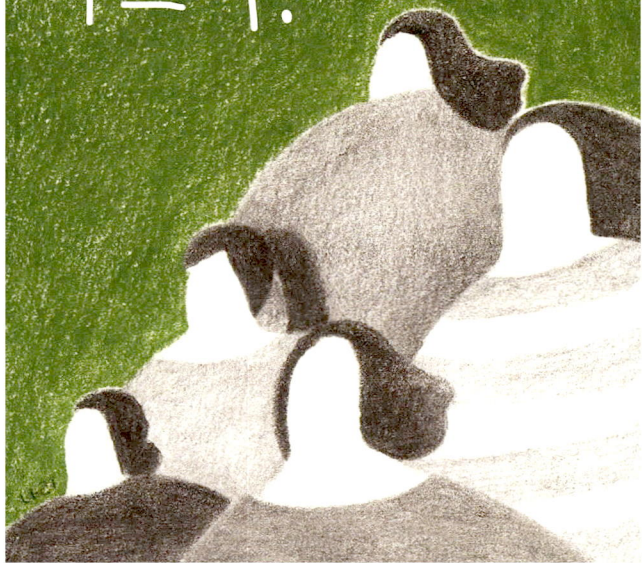


오늘날 여성들은 외모 관리라는 지상 명령과
외모에 집착하는 성형괴물이라는 오명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못생기고 뚱뚱한' 여성이 견뎌야 하는 것은
비단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불이익만이 아니다.
폭식증, 거식증, 자기혐오와 불안, 우울증...
실제로 여성들은 외모 관리 때문에

아프다.



뚱뚱해서 죄송합니까? - 예뻐지느라 아픈 그녀들의 이야기

글  한국여성민우회 출판사 후마니타스

본 연사는 미국 여성평등기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